

SEASON 2018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35 (만년동 396) 대전예술의전당 내
Tel. 042) 270-8372~5 Fax. 042) 270-8379 dcyc.artdj.kr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DAEJEON CIVIC YOUTH CHOIR

모이고
노래하고
춤추며
미래를 꿈꾼다!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DAEJEON CIVIC YOUTH CHOIR






 Daejeon Civic Youth Choir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SEASON 2018



반짝이는 눈빛
 즐거운 속삭임
 설레는 만남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순수한 마음이 모여
 희망을 노래하는 곳~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2018년 청소년합창단 공연일정

월	공연명	공연 일시	장소
3월	기획연주회 2018 청소년합창페스티벌 I	3월 17일(토) 17:00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찾아가는 북 콘서트	4월 7일(토) 16:00	관평도서관
4월	기획연주회 "화목한 문화산책1"	4월 10일(화) 19:30	대덕구
	제71회 정기연주회 "마지막 편지"	5월 19일(토) 17:00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6월	찾아가는 북 콘서트	6월 16일(토) 15:00	안산도서관
	찾아가는 연주회	6월 20일(수) 12:20	을지대학병원
	기획연주회 "화목한 문화산책2"	7월 10일(화) 19:30	동구
7월	찾아가는 연주회 수요브런치	7월 18일(수) 11:00	시청20층 하늘마당
	찾아가는 북 콘서트	7월 28일(토) 15:00	송촌도서관
9월	찾아가는 북 콘서트	9월 8일(토) 15:00	한밭도서관
	찾아가는 연주회	9월 13일(목) 12:20	ETRI 대강당
	찾아가는 연주회	9월 15일(토) 11:00	국립중앙과학관
10월	기획연주회 2018 청소년합창페스티벌 II	10월 13일(토) 17:00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기획연주회 "화목한 문화산책3"	11월 1일(목) 19:30	중구
11월	제72회 정기연주회 "캐롤의 축제"	11월 24일(토) 17:00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12월	찾아가는 연주회 수요브런치	12월 12일(수) 11:00	시청20층 하늘마당

CONTENTS

02	2018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07	2018 공연일정
09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인사말
10	지휘자 소개
12	합창단 소개
14	트레이너 및 피아니스트 소개
16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공연 프로그램
18	제71회 정기연주회
20	제72회 정기연주회
22	2018 기획연주회
26	단원 소개
29	마스터 클래스
30	정기회원 & 단원모집안내
31	연혁

희망과 감동을 담은
메시지를 통해
위로와 힘이 되는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_천경필



클래식이 주는 선물!

청소년 시기는 육체와 정서 그리고 지식이 균형 잡힌 조화를 이루며 성장해야 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눈부시게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그들의 눈에 꿈이 서려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꿈과 함께 창조성을 견비하길 원한다면 클래식음악이 전하는 상상의 세계로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클래식음악을 통해 시대와 공간을 뛰어 넘어 무수한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미국적인 작곡가 조지 거쉬인의 음악은 시골의 한 재즈 바에서 미국 보통사람의 평범한 삶의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태리 작곡가 테오도로 코트라우의 나폴리 민요 '산타 루치아'를 접할 때면 나폴리에 그 맑은 하늘과 드넓게 펼쳐져 있는 지중해의 푸른 파도, 그리고 고풍스러운 도시의 옛 유적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클래식음악이 우리에게 전해 주는 상상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창조성이란 상상의 세계에 대한 충분한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상상의 세계는 한 곳에 갇힌 세계가 아니라 무한히 열려있는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시, 공간을 뛰어넘는 클래식 음악의 위대한 생명력은 아이들에게 끊임없는 상상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응원할 것입니다. 클래식음악의 생명력을 통해 아이들에게 더 큰 삶의 즐거움과 여유, 상상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외웠던 사람들이 아니라, 더 많은 창의력을 통해 기존의 정형화된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식음악은 그저 취미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2018년에는 아이들과 함께 공연장을 찾아 음악을 즐기고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상상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천경필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합창의 매력을 선사하는 우리시대 지휘자!

예술감독겸 상임지휘자 천 경 필



소리를 상상하며 특유의 재능과 열정으로 지휘 인생을 그려 나가는 천경필 지휘자는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를 졸업하고, 1997년 이태리 조르조 페데리코 게디니(G. F. GHEDINI) 국립음악원에 입학하여 성악과 합창지휘를 공부하였다.

2003년 그는 이태리 바레세(VARESE)시에서 주최하는 최고 합창지휘자 코스에서 벨기에 국립방송국 지휘자 에릭 플로리안(Heyerick Florian)에게 사사함과 동시에 최우수 지휘자로 선발되어 한국인 최초로 바레세(VARESE) 시립합창단을 지휘하였다.

이날 많은 저널리스트들은 “바로크 음악의 탁월한 해석”이라는 찬사를 보내며, 유럽에서 데뷔 무대를 갖은 동양에서 온 젊은 지휘자에게 주목하였다.

한국에 귀국한 후에는 성악전공자를 중심으로 한 대전필과이어를 창단하여 새로운 합창음악에 도전하였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합창단 상임지휘자로 부임하여 영재들을 위한 대학합창의 장을 펼쳐 나갔다. 또한 청소년 합창교육에 관심을 갖고 평송 청소년합창단을 창단하여 청소년 교육에 힘을 쏟았으며, 2008년 공주 필하모니 합창단을 창단하여 낙후된 지역음악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해 7월에는 대전시립합창단을 객원 지휘하였다.

2009년에는 대전교구 소년소녀가톨릭합창단 창단과 동시에 음악감독으로 위촉되어 청소년합창음악과 종교음악 연구에 매진하였으며, 2013년 대전광역시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대전 청소년합창음악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2016년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예술감독으로 위촉되어 끊임없는 열정으로 미래 청소년 합창음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우리시대 지휘자로서의 역량을 펼쳐나가고 있다.

Conductor of our time presents appealing choir with endless passion and phenomenal immersion!

Music Director & Conductor CHEON KYOUNG-PIL

Cheon Kyoung-Pil is a conductor who is imagining the sound of music and painting his conductor life with special talent and passion, and graduated and studied vocal music and chorus conducting in Giorgio Federico Ghedini National Academy of Music (G.F. GHEDINI).

In 2001, he studied under Paolo Taricotti, who was a master conductor of Choir and Orchestra at Agent International Art (A.I. ART) in Rome, Italy, and he graduated as the best student. In 2002, he studied Choral Conducting under Alberto Motta at Gaetano Donizetti Academy (G. DONIZETTI) in Milan, Italy. Again he graduated as the best student. It led him to be recognizable in the European stage. In 2003, he studied under the Belgian National Broadcast Conductor, Heyerick Florian, and was selected as the best conductor at the same time in the top choir conducting course, which was hosted by the city of Varese in Italy. On that day, many journalists paid tribute to his outstanding performance by saying "Exceptional interpretation of Baroque music," and they began to notice this young conductor from Asia who had just debuted.

After that, he belonged to European International Agent, Associazione Arcadia, and actively conducted many opera soloists and choir performances. After returning back to Korea, he founded the Daejeon Phil Choir, which was composed mainly of vocal music majors, and challenged the new chorus music. Also, he was appointed as a conductor in the KAIST choir and he started a new chapter of college choirs for gifted students. In addition, he became interested in youth choir education and he founded Pyeongsong Boys Choir to put his effort towards youth education. In 2008, he founded Gongju Phil Harmony Choir to dedicate local music development in lagging areas. In the same year in July, he conducted as a guest conductor in Daejeon Civic Choir.

In 2009, he established the Daejeon Parish Girls and Boys Catholic Chorus and was appointed as a music director at the same time. So, he dedicated research to youth chorus music and religious music and in 2013, he was selected as chairman of the Daejeon Metropolitan Girls and Boys Chorus Conductor Federation. He is currently leading Daejeon youth chorus music very actively.

In 2016, he was appointed as Art Director of Daejeon Civic Youth Choir and is presenting a new model for future youth chorus music with his youthful style and bright talent, and is stretching out his capabilities as a conductor of our time.

꿈꾸는 나무들 미래의 숲을 이룬다!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는 합창의 도시, 대전의 꿈나무,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은 1982년에 창단되었다.

뛰어난 기량과 발전된 테크닉으로 새로운 합창을 만들어내는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은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찾아가는 연주회 등 활발한 연주활동으로 대전 청소년 음악문화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1988년 <제14회 구마모토 국제청소년음악제>는 우리 청소년 합창이 세계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0년 <온갖 새들을 부르는 노래>, 2009년 <반디의 노래> 환경 뮤지컬은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창의적인 음악문화를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2007년 한국 합창단으로 유일하게 참가했던 영국 <에딘버러 페스티벌> 및 <치체스터 음악회>에서의 연주는 우리 청소년합창단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문화사절로서 대전의 위상을 한껏 높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14년 8월, 유엔 유네스코(UN UNESCO) 산하 세계합창연맹(IFCM)에서 개최한 '세계합창심포지엄 및 합창축제(WSCM)'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참가했으며 2012년부터는 중·고등부(Intermediate Choir)와 대학생(Concert Choir)합창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또는 연합(Combine)으로 연주를 하며 여러 형태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노래하는 가장 이상적인 합창단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2015년에는 음악과 평화의 도시 오스트리아 비엔나, 잘츠부르크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국제음악페스티벌에 참가해 맑은 영혼의 소리로 전 세계에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의 하모니를 선보였다.

대전에서 배우며 노래하는 창의적인 학생들로 구성된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기대를 받으며 오늘도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Dreaming Trees make Future Forests!

The Daejeon Civic Youth Choir, "The Dream Tree of Daejeon," was established in the chorus city of Daejeon with beautiful harmony in 1982.

The Daejeon Civic Youth Choir, with exceptional skills and advanced techniques, creates a new landscape in choir culture, giving regular, special and charity concerts, which are held more than 30 times a year.

The Daejeon Civic Youth Choir took the opportunity to become active on a worldwide scale through the 14th International Youth Music Festival in Kumamoto in 1988. The two 'Environmental' musicals, which were "The Singing Songs, Calling all kinds of Birds" in 2000, and "The Lightning Beetle's Songs" in 2009, received reviews to have great effects on building upright characters for adolescents and making creative culture music. In particular, the performance of our youth choir who only participated in the United Kingdom's Edinburgh Festival as well as the Chichester Concert was the beginning of the rising up of the domestic and world stages as cultural ambassadors.

Also, they participated in the World Symposium for Choral Music (WSCM), which was hosted by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Choral Music (IFCM) which is under the UN UNESCO Organization as a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Chorus in August 2014, and from 2012 the Intermediate and Concert Choirs performed individually or combined with a wide repertoire of songs, and they are gaining attention as an ideal chorus from all over the world.

In 2015, they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Chorus Festival, which was held in the cities of music, Vienna and Salzburg in Austria, and also in Prague, Czech Republic., and performed to the whole world with the pure soul of the sound of the Daejeon Civic Youth Choir's beautiful harmony.

"The Soaring Daejeon, Achieving citizen's dreams." - The Daejeon Civic Youth Choir learns and sings in Daejeon, and is composed of creative students. They are following their dreams today with lots of love and anticipation from the people of Daejeon.

트레이너 및 피아니스트



트레이너_장광석

TRAINER_Chang, KwangSuk

-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졸
- 비엔나시립대학교 오페라 석사 졸
- 비엔나 슈베르트 음악원 외래교수
- 중부대학교, 한국영상대 외래교수
- 현) 충남대학교 출강



트레이너_박주현

TRAINER_Park, JooHyun

- 유타 주립대학교 합창지휘 석사졸업
- 아리조나 대학교 합창지휘 박사(ABD)
- 미국 솔트레이크 코랄 아티스트 어시스트 지휘자 역임
- 국립합창단 부지휘자 역임
- 화성필코러스 지휘자

피아니스트_오효순

PIANIST_Oh, HyoSun

-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피아노전공) 졸업, 동대학원 음악과 졸업
- 대전예술의전당 음악영재아카데미 강사 역임
- 대전 필콰이어 반주자, 대전여성 CBS 반주자 역임



피아니스트_이태경

PIANIST_Lee, TaeKyung

- 미국 북텍사스주립대학 석사졸업
- 미국 일리노이 어바나-삼페인주립대학 박사졸업
- 충남대학교 및 동대학원, 전주교대, 대전보건대, 충남예고, 대전영재아카데미 강사역임
- 2016~17 대전 차세대 아티스타 선정



SEASON 2018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DAEJEON CIVIC YOUTH CHOIR

